

##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AAIR 편집장, 순천향의대 박춘식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써 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아직 내가 한참 일할나이라고 생각이 들어 거절할까 하였으나, 동년배 교수님들이 벌써 다 쓰셨다고 하니 아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회와 관련하여 곰곰이 생각하니 마침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AIR)의 편집장으로 처음부터 관여하여 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AAIR 는 약 1 년간의 산고를 앓고 2009 년 10 월 1 일 탄생 하였습니다. 2008 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소알)의 이준성, 손병관 이사장님과 이사들께서 양 학회의 통합된 영문 잡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박해심, 홍수종, 오재원, 김우경, 박중원, 조유숙교수를 중심으로 Task force team 을 만들어 2008 년 10 월부터 AAIR 의 기초적 작업을 구상하였고 2008 년 11 월 회의에서 제가 Chief Editor 로 호선 되었습니다. 이후 숙명여대 이춘실교수가 의학잡지 편집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써의 역할을 다 해 주시었습니다. 2009 년 1 월 계획안이 도출 되었고, 이후 Web site 제작, Agreement From, Manuscript Check List, Guidelines, Transfer of Copyright, Conflict of Interest 등의 투고 관련 절차 내용, M2 COMM, Xmlink 등의 관련 회사와의 업무 작업등을 매달 회의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2009 년 9 월 17 일 AAIR 창간호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처음의 잡지 이름도 Asian J of Allergy, Immunology and Respirology, J of Allergy, Immunology and Respirology, Allergy, Immunology and Respirology 등의 여러 이름이 나왔으나, AAIR 로 결정 되었고, 약자로 읽으면 AIR 가 되어 천식,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높은 뜻으로 해석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A 가 두 개 AA 가 있어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잡지 중 첫 번째로 순위가 나오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대알 및 소알의 간행이사는 당연직으로 책임편집위원(Associate editor)이 되며, 편집장과 책임편집위원의 모임인 편집위원회에서 간행, 일반 업무 결정을 합니다. 국외 저명인사를

책임편집위원과 편집인으로 총 20 분을 모시어 전체 59 명중 33%를 차지 하였습니다. 책임 편집위원은 양학회의 간행이사와 중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advisory board 는 이사장, 회장을 지내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종설 원고는 국외 저명 학자에게 박해심, 오재원, 홍수종교수가 국외 담당을 맡아서 일을 해 주셨으며, 유학을 나간 분들이 국외지도 교수에게 원고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원로 회원에게 평생 동안 연구, 경험한 내용을 종설로 초청 하였습니다. 뛰어난 업적이 있는 젊은 중진 회원들의 종설원고를 게재치 못하여 죄송하였으나, 2013 년 부터는 연배에 관계없이 내용이 훌륭한 종설원고를 받고 있으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창간호는 국외 저명 학자 3 편의 종설, 4 편의 원저, 2 편의 증례가 실렸습니다. 창간호를 받아본 회원들과 잡지 발간 전문가 들이 표지의 아름다움을 칭찬 하였는데, 박해심, 조유숙, 이춘실 3 분 교수님의 명품을 만드는 혜안으로 만들어 진 작품이며, 잡지 하단의 3 색의 꽃잎은 Allergy, Asthma 의 두 개의 꽃잎을 대알과 소알, 두 학회가 받드는 모습을 상징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 모든 일이 지금 생각하면 가능 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가 파악하고 이해, 결정하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편집장으로써 AAIR 잡지의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무지의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르다 보니 의학 잡지 전문가인 이춘실, 조승렬, 민양기 교수님과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간행준비위원들의 의견에 내 의견을 붙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창간호가 잘 나온 것을 보니, 꼭 내가 다 알고 일을 하기 보다는 더 전문적이며, 열심히 준비하는 후배 교수들이 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일에 타인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일을 하는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 발간 후 2009 년 1 월, 4 월호까지는 많은 분들이 우려 한 대로 원고 부족으로 종설을 많이 실었고, 강제로 책임 편집위원들에게 논문 투고를 할당하여 원고 수를 유지 하였고, 2010 년 7 월호는 김유영 교수 정년 기념으로 논문을 만들어 논문 수를 충원하였습니다. 2010 년 3 월에 PubMed 등재가 되었고, 이후에 논문 투고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고 2011년까지는 년 4회 발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증가하는 원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년 6회를 발간하였고 2013년 5월 호까지 총 18권을 발간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SCIE에 등재 2011년의 Impact factor 가 1.913으로 전 세계 알레르기 관련 잡지 20종류 중 11등으로 평가를 받은 후 "We are keen to develop AAIR as a leading journal in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라는 최초 목표의 반을 달성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논문 투고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 권에 리뷰 2편, 원저 5-6편, 증례 1-2편, 9편을 게재하고 있으나, 밀리는 원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호 부터는 한 호에 리뷰 2편, 원저 8-9편, 증례 1-2편, 총 12편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문 투고 후 1차 심사 기간 후 저자에게 연락이 가는 기간이 8주 내지 12주 정도가 됨으로 3개월 안에 연락이 없는 경우는 AAIR 편집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례는 Impact factor 향상을 위하여 2012년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증례인 경우만 심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많은 증례 원고가 심사 거부로 반송되어 JAKI에 보내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악평이 있으나,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부탁합니다. 후배 교수님들의 애교어린 항의(?)로 Chief editor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원저의 경우 국외 논문은 거부율이 50%를 상회하나, 국내 논문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력이 많이 들어간 논문이라 쉽게 게재 불가를 못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AAIR의 발전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구축된 편집위원들의 전문화, 바쁜 와중에도 성실히 평가하여 주신 평가위원 여러분의 확보는 AAIR 가 발전하는 기틀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간행 기획이 AAIR를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잡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간 AAIR 간행에 관련되어 일을 하신 모든 분들과 이를 사랑하여 주신 양 학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